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 공연일정 : 2017년 12월 9일(토) ~ 17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 일요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 2만원(20인 이상 예약 시 단체관람 적용/별도문의)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바다에서 바람보다 무서운 것은 안개이다

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에서 김민정 작가와 함께 2017년도의 마지막 작품 〈해무〉를 준비했습니다.

‘해무’란 바다 위에 끼는 짙은 안개를 뜻하며, 바다에서 폭풍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해무라고 합니다. 파도에도 길이 있고 바람에도 길이 있으나 안개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무 속에 갇히면 해무가 스스로 풀어주기 전에는 빠져 나올 수가 없고,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욱 깊숙이 빠지게 되는데, 이는 마치 삶의 고난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작품은 해무에 갇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뱃사람들의 역경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신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난파된 낡은 어선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실감나는 무대와 디테일한 소품, 멀미가 날 정도로 생생한 바다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관객들은 실제로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뱃사람들이 지독한 고난과 싸우는 현장을 지켜보며 삶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마치 한 배에 탄 듯 그들의 처지에 점차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 공연일정 :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 예매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고전음악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헨델의 메시아 원전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양한 소리로 노래하며 소통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이 12월 정기연주회를 맞아, 고전음악의 진수 헨델 ‘메시아’를 선보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 성당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합창단들이 연주하는 헨델의 ‘메시아’를 인천시립합창단은 이번 연주회에서 바로크 시대 악기들로 재현하여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원전연주로 전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크음악 전문 연주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떠오르는 소프라노 이윤정, 세계적인 알토 이아경 교수와 섬세한 목소리의 테너 김세일,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 Wayne Koppelien 등 세계적인 4인의 성악가가 함께하는 무대로 크리스마스과 연말의 분위기를 웅장하게 연출하여 2017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9회 정기연주회 〈주제, 그리고 고정악상의 유희〉



- 공연일정 :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즐기는 음악의 유희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9회 정기연주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채롭게 변형되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 로코코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표제음악의 시작을 알리며 고정악상을 중심으로 무궁한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한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정치용의 지휘로 연주합니다.

고정악상이란 베를리오즈가 ‘환상교향곡’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수법으로서, 주인공의 연인을 상징하는 고유한 멜로디를 뜻합니다. 이 멜로디가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전 악장을 통해 순환하며 나타내는 연주를 통해 이 멜로디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음악회의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윤이상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하며 미국과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박진영의 협연으로 첼로의 다양한 테크닉 속에서 어떻게 주제가 변형되는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곡 또한 멘델스존이 독일 대문호 괴테의 짧은 시 ‘바다의 고요함’과 ‘즐거움 항해’에서 영감을 얻은 곡으로 콘트라베이스의 선율로 표현된 바다의 공포와 고요한 현악기의 섬세한 화음 그리고 관악기의 즐거운 항해로 이어지는 젊은 멘델스존의 신선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피콘서트 10 윤석철 트리오, ‘재즈인 듯 재즈 아닌, 재즈의 진화’



- 공연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2시, 7시 30분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1만5천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실력과 재즈뮤지션 윤석철 트리오가 선사하는 12월의 재즈 선물!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가꾸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입니다. ‘육아’와 ‘가사’라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커피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무대로 공연 마실을 나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전석 1만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입니다.

윤석철 트ριο는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피아노)을 중심으로 정상이(베이스), 김영진(드럼)으로 이루어진 재즈 트리오입니다. 트리오라는 미니멀한 편성으로 최고의 인터플레이를 선보이는 ‘윤석철 트리오’는 이번 무대에서 그들의 최신곡을 포함한 대표곡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익숙한 캐롤 및 팝송 등을 윤석철 트리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들려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연말 분위기를 흥분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오후 2시에 이어, 기존에 낮 시간에 관람이 어려웠던 관객들을 위해 오후 7시 30분 공연도 준비하여 더 많은 관객분들에게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